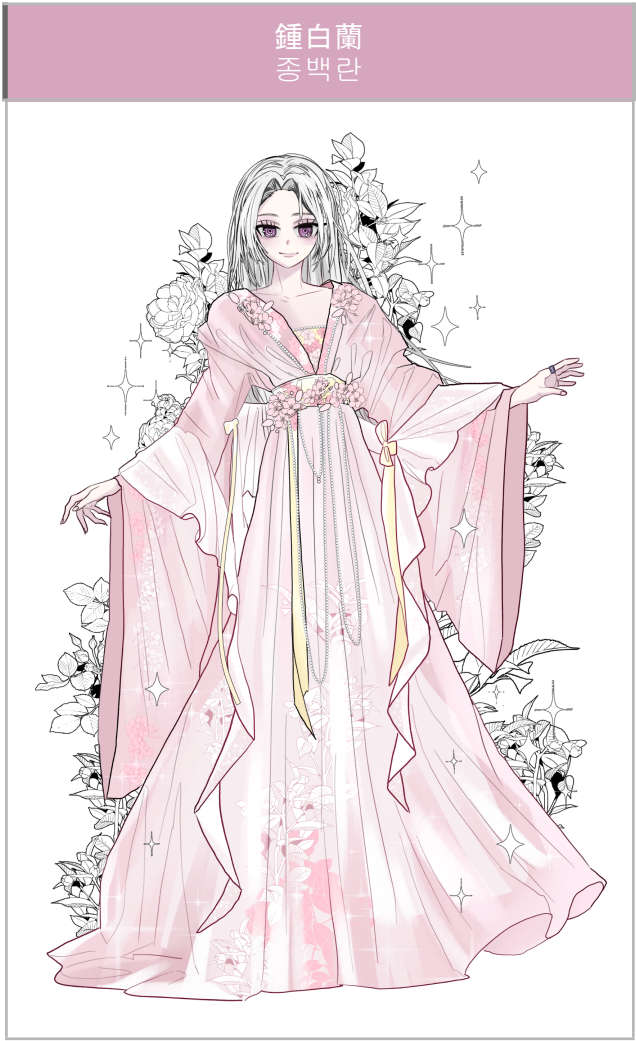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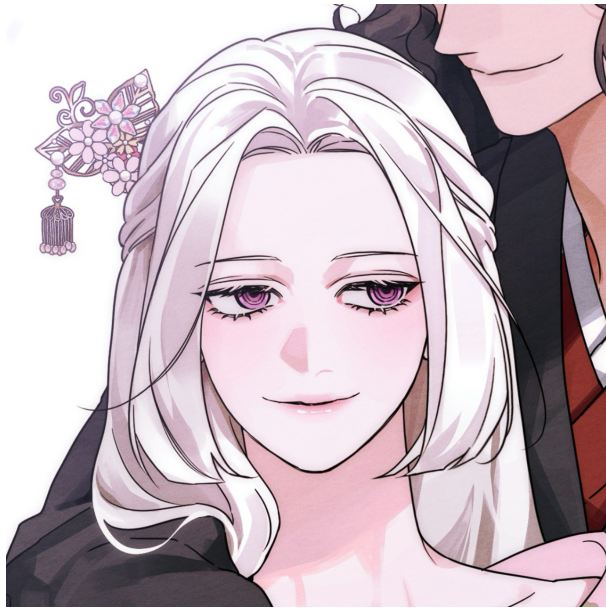


종백란

최근 수정 시각: 2024-06-23 18:52:26

분류: 광마회귀 | 광마회귀/등장인물 | 화산귀환 | 화산귀환/등장인물 | 이자하 | 반정사걸 | 몽주





© 맥시, 레이지빈, 구육 님

본명	종백란(鍾白蘭)
나이	1000세 이상
신체	5자 7치
생일	11월 14일
가족	아버지 종주훈 어머니 진도화 여동생 종백련 방계 후손 임소병 배우자 이자하
소속 및 직위	녹림심팔채 총사, 녹림소왕(綠林小王) → 녹림왕 → 매화검문 / 대종사 매화검문 / 2대 장문인 화산파 / 대종사 천우맹 / 총사

별호	혈향선희(血香扇姬) 백매검후(白梅劍后) 쾌존(快尊)
첫 등장	0화 서(序)
성우	양정화(오디오 드라마)

목차

1. 개요
2. 특징
 2. 1. 외모
 2. 2. 성격
3. 능력
 3. 1. 강함 및 무공
 3. 1. 1. 태양신공
 3. 1. 2. 월영무정공
 3. 1. 3. 백전십단공
 3. 1. 4.
 - 만년흡성대법
 3. 1. 5. 매화검법
 3. 1. 6. 유화신공
 3. 1. 7. 백화비
 3. 1. 8. 자하신공
 3. 1. 9.
 - 환영매화선법
 3. 2. 지략
4. 작중 행적
 4. 1. 천하제일
 - 비무대회
 4. 2. 화영문 서안 이주
 4. 3. 만인방의 화산
 - 침공
 4. 4. 만년한철 매화검
 4. 5. 북해빙궁
 4. 6. 녹림채 반란 진압
 4. 7. 무당과의 비무
 4. 8. 청진 유해
 4. 9. 장강참변
 4. 10. 화산파 봉문
 4. 11. 매화도 참변
 4. 12. 항주마화
 4. 13. 천우맹 공동
 - 수련
 4. 14. 해남파 구출

- 5. 인간관계
 - 5. 1. 사대악인
 - 5. 2. 반정사건
 - 5. 3. 과거
 - 5. 3. 1. 녹림십팔재
 - 5. 3. 2. 서생 세력
 - 5. 3. 3. 무림맹
 - 5. 3. 4. 천마신교
 - 5. 3. 5. 화산
 - 5. 3. 6. 기타
 - 5. 4. 현재
 - 5. 4. 1. 화산파
 - 5. 4. 2. 녹림칠십이재
 - 5. 4. 3. 기타
- 6. 명대사
- 7. 기타

[편집]

V 1. 개요

강호제일 미친년.

스승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내 마음의
강호도 함께 무너졌다.

조아라에서 연재 중인 화산귀환과 광마회귀의 크로스오버 패러디 소설 백란의 주인공.

이자하의 첫 제자. 과거 매화검문의 2대 장문인. 매화검법 등을 포함한 화산파의 무학을 대거 창시한 문파의 대종사이기도 하다. 자하의 사후 당대의 천하제일인(天下第一人)으로 등극했다.

22살에 실수로 만년하수오를 복용했고, 평소 백란이 사용하던 극양의 기운과 만년하수오의 오성의 기운이 충돌하며 운기조식을 잘못해 불로불사의 육체가 되었다. 영생이라는 삶의 특성상 시간이 흐르면 주위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혼자만 남아버리기 때문에 평상시 누군가와 특별히 가까운 관계를 갖거나 주위에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

[편집]

V 2. 특징

[편집]

V 2. 1. 외모

모두의 시선이 향한 곳에 먼지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웬 여인이 두 손을 털며 그곳에 서 있었다.

“어우씨, 먼지.”

그 여인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코 새하얀 머리카락이었다. 기장은 허리 아래까지 길게 내려왔고,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마치 나뭇가지에 피어 있는 백매화를 연상케 했다.

피부는 마치 백옥처럼 투명했고, 전체적인 얼굴은 이제 막 약관을 넘긴 듯 보였다. 눈동자는 중원에서 보기 드문 연한 자색이었다. 이런 외모에서 괴리감을 느낄 법도 했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옷은 정반대로 검은색 무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새까만 색상이 마치 곡을 부르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가 허리춤에 차고 있는 검을 통해, 그녀가 검수임을 알 수 있었다.

2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자타공인 미인이다. 작중에서 언급되길 중원제일이 수준이며, 미모로 견줄 수 있는 사람은 1000년 전 사망한 비공식 천하제일이 백란의 어머니 진도화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런 어머니를 빼다 박은 수준으로 닮아 중원에서는 보기 드문 서양적인, 약간 유럽 쪽 느낌의 미인이다. 조모가 스칸디나비아반도 출신의 인물이라 쿼터 혼혈로, 자연적인 백발이다. 항상 5대 5 가르마를 유지하고, 옆머리는 히메컷으로 단정하게 잘라 관리한다. 옆동네의 누군가가 떠오르는 듯한 동심원 모양의 자주색 동공이다. 이 또한 조모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백란 본인은 넘사벽 수준의 어머니를 보고 자란 탓에 녹채에서 가출하기 전까지 스스로를 그리 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백란의 관심은 어느 순간부터 화려한 치장으로 향하게 됐다. 보석이 박힌 귀걸이, 은팔찌, 자수 향낭 등을 항상 착용한다. 장신구 중에선 비녀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수십 가지의 비녀를 사두고 그날 기분에 따라 골라서 착용한다. 장일소와 비슷한 취향이지만, 장일소는 주로 묘사스럽다고 묘사되는 반면 백란은 화려하다고 서술된다.

이자하가 백란의 비녀로 자살하고 그 일이 트라우마로 남게 되면서, 백란은 이후로 비녀를 착용하지 않는다. 심지어 한동안은 밝은 옷 대신 어두운 옷들만 골라 입었다. 반정사절을 만나 우정을 쌓게 되면서 조금씩 정신적으로 회복이 된 듯하며, 다시 예전의 화려한 차림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물론 비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들의 사후엔 이젠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절망감에 심마가 오며, 무의식 적으로 어두운 의복들만 골라 입었다. 그 탓에 환생한 반정사걸은 백란을 처음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후예인 줄 착각할 정도.

반정사걸이 환생하고, 자하와도 화해하고, 녹림에 대한 오해도 풀면서 다시 이전과 같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돌아온다. 백란이 입고 있는 의복이 바로 그녀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셈이다.

[편집]

Ⅴ 2. 2. 성격

“과분하지만, 강호제일 미친년이라는 별호를 달고 있지요.”

그 말에 송윤이 코웃음을 쳤다.

“고작 그 말만으로 니 광기를 담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화

[편집]

Ⅴ 3. 능력

[편집]

Ⅴ 3. 1. 강함 및 무공

본문 내용 넣기

[편집]

Ⅴ 3. 1. 1. 태양신공

태양신공(太陽神功)

[편집]

Ⅴ 3. 1. 2. 월영무정공

월영무정공(月影無情功)

[편집]

Ⅴ 3. 1. 3. 백전십단공

백전십단공(白電十段功)

[편집]

Ⅴ 3. 1. 4. 만년흡성대법

만년흡성대법(萬年吸星大法)

[편집]

Ⅴ 3. 1. 5. 매화검법

매화검법(梅花劍法)

[편집]

Ⅴ 3. 1. 6. 유화신공

유화신공(流華神功)

[편집]

Ⅴ 3. 1. 7. 백화비

백화비(白花飛)

[편집]

Ⅴ 3. 1. 8. 자하신공

자하신공(紫霞神功)

[편집]

Ⅴ 3. 1. 9. 환영매화선법

~

환영매화선법(幻影梅花扇法)

- 매화연향(梅花蓮香)
환영매화선법의 가장 기초 초식으로, 상대의 등 뒤로 뛰어올라 종으로 베는 기술
- 매무백화(梅舞白花)
매화가 춤추며 흔들리는 하얀 꽃 처럼 철선을 휘둘러 횡으로 베는 기술

- 매향취선(梅香翠扇)
본인을 중심으로 용솟음 치는 회오리 바람에 매화 향기가 퍼져 나가는 기술
- 매설녹영(梅雪綠影)
매화가 눈으로 가려지고 푸른 그림자에 숨듯 원을 그리며 방어하는 기술
- 매화난영(梅花蘭影)
수수한 난초 처럼 간결한 움직임으로 정확하게 목을 노려 하향으로 베어내는 기술
- 매무녹의(梅舞綠衣)
푸른 옷을 입고 매화가 춤을 추듯 원을 그리며 철선을 휘두르는 기술
- 매림녹화(梅林綠花)
만개한 매화숲에 핀 푸른 꽃 처럼 거센 고속 회전베기 기술
- 만첩백매(萬疊白梅)
공격과 방어를 결합하는 목적으로, 여러 겹을 이룬 백매 처럼 무한대를 그리듯이 좌우로 선기(扇氣)를 날리는 기술

[\[편집\]](#)

V 3. 2. 지략

~

[\[편집\]](#)

V 4. 작중 행적

~

[\[편집\]](#)

V 4. 1. 천하제일 비무대회

~

[\[편집\]](#)

V 4. 2. 화영문 서안 이주

~

[\[편집\]](#)

V 4. 3. 만인방의 화산 침공

~

[\[편집\]](#)

V 4. 4. 만년한철 매화검

~

[\[편집\]](#)

Ⅴ 4. 5. 북해빙궁

~

[\[편집\]](#)

Ⅴ 4. 6. 녹림채 반란 진압

~

[\[편집\]](#)

Ⅴ 4. 7. 무당과의 비무

~

[\[편집\]](#)

Ⅴ 4. 8. 청진 유해

~

[\[편집\]](#)

Ⅴ 4. 9. 장강참변

~

[\[편집\]](#)

Ⅴ 4. 10. 화산파 봉문

~

[\[편집\]](#)

Ⅴ 4. 11. 매화도 참변

~

[\[편집\]](#)

Ⅴ 4. 12. 항주마화

~

[\[편집\]](#)

Ⅴ 4. 13. 천우맹 공동 수련

~

[편집]

Ⅴ 4. 14. 해남파 구출

~

[편집]

Ⅴ 5. 인간관계

[편집]

Ⅴ 5. 1. 사대악인

- 이자하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자, 연모하는 부군.

소설 기준 26화(점소이가 무공을 숨김). 금봉각주를 죽이고 돌아가던 길, 종백란이 집을 나와 방황할 때 독초인 줄 알고 잘못 먹은 만년하수오의 운기를 이자하가 도와주며 처음 만났다. 백란은 극양의 무공인 태양신공을 익혀왔기 때문에 하수오에 담긴 음의 기운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화입마에 빠진다. 그러나 산속에서 우연히 만난 자하가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자, 백란은 그의 무공에 감탄했고, 갈 곳이 없던 터라 냅다 스승으로 모셨다. 거의 일방적인 통보에 가까웠다.

자하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동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의식하지 못한 호감이 쌓여간다. 스승과 제자라기엔 고작 다섯 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니 이상할 일도 아니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어느 순간부터 서로에게 서로의 존재가 당연해질 무렵, 백란이 먼저 자신의 연심을 깨달았다. 감히 스승에게 사심을... 그런 건 없었다. 종백란은 태생이 산적이었고, 후에는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 자신은 공주가 된 여인이다. 뻔뻔함과 더불어 갖고 싶은 것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으로는 가히 천하제일이라 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백란이 뭔가 특별한 행동을 취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늘 그랬듯이 스승의 곁에 있었다. 굳이 자신이 뭔가를 할 필요도 없이, 그녀의 눈에는 스승도 같은 마음이라는 게 훤히 보였다. 그러니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여겼다.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이자하도 자신의 감정에 정의를 내렸다. 훔날리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검을 휘두르는 모습과, 진지하기 그지없던 표정이 자신을 보자마자 난초 같은 미소로 바뀌는 걸 본 그 순간이었다. 자하는 백란과 달리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도 스승이라고 양심은 있다, 이거였다. 하지만 곧바로 동도제일인을 잡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면서 자하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결국 사대악인과 종백란은 동도제일인을 잡고 무사히 귀환했다. 백란과 자하는 무림맹으로 향하기 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모용 의가에 들리게 된다. 그곳에서 모용 선생은 늘 그랬듯 자하의 광증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중에는 장가 가라는 내용도 있었다. “문주님도

참한 처자 만나 혼인도 하시고요”라는 말이 나오자, 자하는 무의식적으로 제자를 바라보고 말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얹혔다. 잠깐의 정적이 내려앉았지만, 자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런 어색함 따위를 날려버리기에 충분했다.

“백란아. 혼인할래?”

“그럴까요?!”

뜬금없는 스승의 청혼과 제자의 망설임 없는 대답 때문에 집주인 모용백만 환장할 노릇이었다.

#화

- 독고검마

~

- 귀마 육합선생

~

- 색마 몽랑

~

[편집]

Ⅴ 5. 2. 반정사건

[편집]

Ⅴ 5. 3. 과거

[편집]

Ⅴ 5. 3. 1. 화산파

~

[편집]

Ⅴ 5. 3. 2. 녹림십팔채

~

[편집]

▼ 5. 3. 3. 기타

[\[편집\]](#)

▼ 5. 4. 현재

~

[\[편집\]](#)

▼ 5. 4. 1. 화산파

~

[\[편집\]](#)

▼ 5. 4. 2. 녹림칠십이채

~

[\[편집\]](#)

▼ 5. 4. 3. 기타

~

[\[편집\]](#)

▼ 6. 명대사

~

본문 내용 넣기

본문 내용 넣기

본문 내용 넣기

V 7. 기타

내 인생의 한 장이 이렇게 불타오르며, 서책의 먹이 흩어져 버렸다. 스승님, 당신은 마지막 장을 이렇게 맺으셨군요.